보건복지부	보도참고자료	국무총리실

보도시점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	2025. 2. 13.(목)

「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」 제88차 회의 개최

-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-

「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」(본부장: 국무총리)는 2월 13일(목)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.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,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,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,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1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

2월 1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5,105명으로, 평시('24년 2월 1주, 95,981명)와 비슷한 수준이다.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,485명으로,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(101.6%)을 유지하고 있다.

응급의료의 경우 전국 412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*이다. 2.10. 기준 27종 중증·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·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, '24년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2월 1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3,642명으로, 평시의 76.2% 수준이다.

* (중단 2개소) 세종충남대, 속초의료원 / 명주병원 휴업으로 총계에서 제외(1.30.~)

2 의료개혁 추진

정부는 필수·지역의료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 중이다. **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**을 통해 권역응급·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**일반병상 3,620개**를 **감축**하고, **중환자실**을 **112개 증설***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·응급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.

* '24.9월 대비 '25.1월 기준 증가 수치

또한 사업 시작 이후 '24년 12월까지 **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**는 **56%**, **전문회송 건수**는 **233%**로 **대폭 상승**하였으며,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**32개 병원**에서 **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**을 **운영**하여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.

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·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**도 **마련 중**이다.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·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**지역 내 의료수요**를 **대부분 충족**시키면서, **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**을 **지원, 육성**하는 **방안**을 **논의 중**이다.

비급여·실손보험 개편,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도 현장 전문가,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하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"그간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다"라며 "**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**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	책임자	과 장	송명준 (044-202-1600)
	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	담당자	사무관	유규연 (044-202-160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